

A Study on the Practicality of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of UNESCO*

Jongmin Lee
(Ch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actica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identify the concept, meaning,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been studied and published around UNESCO since the early 1980s, and present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ristian education. This study chronologically selected five major reports published by UNESCO--"Our Common Future"(1987), "Agenda 21"(1992),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2002), "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2019"(2014)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2020)--and examined the concept and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SD). At the same time, in relation t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he occurrence, change,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ere examined and presented. This study derived thre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necessary to properly establish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based on a leadership development strategy us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sustaina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the foundation of education based on the correct biblical interpretation of cultural mandate is first examined, and then the need for curriculum development and class design is proposed using various types of indicators and educational modules. Finally, specific practic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leadership to revitalize Christian education are presented throug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ultural Mandate, Educational Modules, Educational Leadership

Received June 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9, 2023

Author : Jongmin Lee,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joyezra@csu.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ongshin University Grant in 2023.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의 실천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종민**
(충신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행 방향을 규명하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5개의 주요 보고서들--“우리 공동의 미래”(1987), “의제21”(1992), “유엔ESD 10년”(2002), “글로벌실행프로그램 2015-2019”(2014) 그리고 “지속가능발전2030”(2020)--을 연대순으로 선별하고, 그 안에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SD)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발생과 변천 그리고 실행방식을 살펴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갖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리더십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교육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문화명령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토대를 점검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표와 교육모듈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문화명령, 교육모듈, 교육리더십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2022년 11월 1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joyezra@csu.ac.kr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선 지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성한 부가 일부 특정 계층에게 편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최첨단 IT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일상을 빼앗아 가고 새로운 삶의 규범들과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화의 문제는 단지 21세기의 인류와 지구생태계가 봉착한 문제만은 아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이후부터 국제 사회는 환경과 사회적 빈곤 그리고 저개발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4년 유엔에서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작성하여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걱정과 자연에 대한 청지기 정신에 관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D)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WCED)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WCED, 1987, 43). 이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세대 간의 책임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 개념이다. 이러한 발전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한정된 지구 자원 속에서 증가하는 인구와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희망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엔 총회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보고서들을 통해서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1974년 1974년 권고문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92년 의제 21(Agenda 21)

2000년 새천년발전목표(MDGs)

2002년 유엔 ESD 10년(DESD)

200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

2013년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정책 및 실행 평가 도구

2014년 ESD 국제실천 프로그램(GAP)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2030)

이처럼 2022년을 살아가는 인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음 세대에서 물려줌에 있어서 가능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짐을 떠넘기지 않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홍성수, 2022, 유은주,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발표되었던 주요문서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이 변천해 온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지역적,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교육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교육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의 토대와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 그리고 교육리더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보생명그룹을 창립한 신용호는 출판업을 하는 기업인으로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이 명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다. 또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논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명구의 뜻은 개념을 정립하는 사람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논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 개의 명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의 정의 내리고, 그 개념을 책으로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인류는 새로운 천년인 밀레니움을 맞이하기에 앞에 자신들이 지난 20세기에 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지구환경과 국제협력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를 주도적으로 시작한 단체가 바로 유엔이고,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주체가 유네스코이다. 이들은 중요한 개념들과 관련하여 주요 공식문서를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과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측정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회원국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진전 사항들을 파악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문서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주요문서들

| | | | | |
|---------------------------|------------------------------|-----------------------------------|----------------------------------|-----------------------------------|
| 우리 공동의 미래 (1987) | 의제 21 (1992) | 유엔 ESD 10년 2005-2014 (2002) | 글로벌실행프로그램 2015-2019 (2014) | 지속가능발전2030 2020-2030 (2020) |
| SD 개념 소개 개괄적인 목표 제시 | 글로벌파트너십 제안서 21가지 의제 채택 | SD 교육모델 소개 MDGs 지표 구체화 | MDG 2 & SDG 4 5 우선순위 영역 | SDGs 실천 계획서 모니터링 지표 |
| 브룬트란트 보고서 | Agenda 21 | DESD | GAP | ESD 2030 |

1.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

1987년 유엔 총회는 2000년을 넘어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위한 세계적 의제”(A global agenda for change)라는 시급한 안건을 가지고 브룬트란트에 모여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유엔은 끊임없는 노력을 시도했다. 일례로 1983년에 전 지구 공동체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우리는 변화를 위한 위임이 필요하다”(We needed a mandate for change)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여 주요 문서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중점을 두기 시작한 개념은 바로 “발전”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1960-70년대에 있어서 발전은 “가난한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어떤 국가가 부강해지면 반대로 다른 국가는 굶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불균형적 발전, 빈곤, 그리고 인구 증가가 발생하면서 발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두 가지 핵심 개념인 “필요”와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WCED, 1987, 41).

- ‘필요’라는 개념은 특히 세계 빈곤층의 본질적인 필요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 ‘제한’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대한 기술과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부과되는 것.

이처럼 필요와 제한이라는 보충어를 활용하여 발전을 설명함으로써, 선진국이나 개발도상

국, 시장 중심의 경제나 중앙통제적 경제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어지던 발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재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보고서에서는 빈곤으로부터 야기되는 필요와 환경의 자연정화능력에 따르는 제한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였다(WCED, 1987, 42-43).

6.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가 생산 잠재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9. 최소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 위의 생명을 지원하는 자연 체계-공기, 물, 토양, 생물-를 위협롭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12. 지속가능한 발전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비율이 가능한 적은 수의 미래 옵션으로 배제하여 함을 요구한다.
13. 지속가능한 발전은 식물과 동물 종들의 보존을 요구한다.
15.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원 개발, 투자 방향, 기술 개발 방향, 그리고 제도적 변화는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변화의 과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교육과 제도 정비 및 법 집행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WCED, 1987, 42-43).

- 성장을 소생하는 것
- 성장의 질을 바꾸는 것
- 일자리, 식량, 에너지, 물, 위생에 대한 필요요구를 충족하는 것
-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
- 자원 기반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
- 기술을 재정향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
- 의사결정에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것

이처럼 “우리 공동의 미래”는 20세기의 시대정신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펼쳐질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안하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인류가 새롭게 직면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발전 이데올로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제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특별히 1980년대

에 국제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속해 있는 제3세계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기간의 해결책이 아닌 장기간의 해결책으로써의 국제적 개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인구, 식량, 생태계, 에너지, 산업사회, 도시 등의 영역에서 위기를 지적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동영역 관리(대양, 우주, 남극), 평화와 안전(환경적 스트레스, 분쟁, 안전), 그리고 제도화와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다(WCED, 1987, 281).

우리는 현재 기관의 현실, 오늘날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옵션을 계속 열어 두려면 지금 세대가 지금 시작해야 하며, 국가적으로 및 국제적으로 함께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1987년에 보고된 “우리 공동의 미래”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가 1980년에 서 있는 현주소를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건설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 의제 21(Agenda 21, 1992)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이하 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확대하여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특별히 의제 21의 목표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 전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UNCED, 1992, 3).

의제 21은 오늘날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다음 세기의 도전들을 위한 세계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발과 환경의 협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합의와 정치적 약속을 반영한다. 성공적인 시행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 전략, 계획, 정책 및 프로세스는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적 협력은 그러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국제, 지역 및 소지역 조직도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가장 광범위한 공식적 참여와 비정부 기구 및 기타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도 장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안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부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참여를 소개하고 있고, 2부는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의제 21의 내용

| 1부 사회·경제적 차원 | 2부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 |
|--|---|
| 2. 개도국의 지속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정책 및 관련 국내정책 3. 빈곤퇴치 4. 소비패턴의 변화 5. 인구변동추이와 지속가능성 6. 인간 보건 여건 보호 및 증진 7.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 8. 의사결정 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9. 대기 보호 10. 토지자원의 기획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11. 산림황폐방지 12. 사막화 및 가뭄 퇴치 13.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14. 생물다양성 보존 16. 생명공학의 환경청정관리 17.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18. 담수 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19.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청정관리 20. 유해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21.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22.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과 환경청정관리 |

특별히 2부에서 “환경청정관리”(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라는 개념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소개한다. 예를 들어 19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UNCED, 1992, 226).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칙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청정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많은 국가에서 화학물질 안전 증진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작업은 화학적 위험이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청정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생명공학, 유해화학물질, 유해폐기물, 고형 및 하수 폐기물,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혹은 국내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제 21”의 36장 “교육, 대중 인식, 훈련의 증진”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재정립과 대중 인식의 확대, 그리고 훈련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UNCED, 1992, 320-327).

‘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환경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기본 교육이 모든 환경과 개발 교육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후자는 학습의 필수 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은 모두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을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은 환경 및 윤리적 인식, 가치와 태도, 기술 및 행동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대중 참여를 위해 중요하다. 효과를 내기 위해 환경과 개발 교육은 물리적/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인간(정신적 발달을 포함할 수 있음) 개발의 역동성을 다루어야 하며, 모든 학문 분야에 통합되어야 하고, 형식적 및 비형식적 방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립할 수 있는 태도, 가치 및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광범위한 ‘대중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식 구축 활동에 대한 지역적 책임과 통제를 우선시하여 권한, 책무 및 자원을 가장 적절한 수준까지 개발하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개인이 고용을 찾고 환경과 개발 작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별 초점 교육이 있어야만 한다. 동시에 훈련 프로그램은 양방향 학습 과정으로써 환경과 개발 문제에 대한 더 큰 인식을 촉진해야만 한다.

이처럼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들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한 걸음 더 발전하여 1996년에 유네스코에서는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육, 대중의 의식화 그리고 생존능력 형성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이라는 표제 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3.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DESD, 2002)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2005-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제정하자는 권고를 하고, 이어 제5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ESD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이하 유엔 DESD)을 채택하고, 유네스코를 프로그램을 증진시켜 나갈 핵심 단체로 선정하였다. 특별히 유엔 DESD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본적인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 사회”이다(UNESCO, 2005, 6). 이를 위하여 유엔 DESD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UNESCO, 2005, 9).

- 새천년 발전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는 교육이 중요한 입력 및 지표가 되는 일련의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공한다.
-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유엔리터러시10년(UNLD, United Nations Literacy Decade)은 모든 형태의 구조화된 학

습을 위한 핵심 학습 도구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 DESD는 모든 상황에서 학습을 특성화해야 하는 일련의 기본 가치, 관계 프로세스 및 행동 결과를 촉진한다.

이처럼 유엔 DESD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노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양질의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 재조정, 대중의 이해와 인식의 개발, 그리고 훈련의 제공” 등의 주요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만약 참여국들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추진 전략을 시행할 경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존과 경제적 생존력 차원에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혁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 DESD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적 체계를 하부 단계에서부터 상부 단계로 올라가는 운영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즉 지역공동체에서부터 국내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운영단위를 제시 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도전과 해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한 유네스코의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유엔 DESD는 전진을 위한 일곱 가지 전략 - 비전 구축 및 옹호, 상담 및 소유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훈련, 연구 및 혁신, 정보 통신 기술(ICT)의 사용,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 을 제시하였다(UNESCO, 2005, 16). 이처럼 유엔 DESD는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글로벌행동프로그램(2015-2019, GAP, 2014)

유네스코에서는 유엔 DESD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면서도 실제적인 공헌점들을 확인하고자 국제적인 차원의 진전 상황 보고를 위한 계획서를 2014년도에 작성하였다. 이것이 일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행동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GAP)이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략들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행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지구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가지 영역에서 다차원적인 국제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보고서인 “새천년 발전 목표들”(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이고, 또 다른 하나는 MDGs에서 제시하는 8가지 영역을 포함하면서 국제 개발과 지구상의 인류의 존속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가능발

전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17가지 의제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이다. 각각의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새천년 발전 목표들(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의 비교

그중에서 MDGs의 두 번째 의제와 SDGs의 네 번째 의제가 교육 분야와 관련된 목표이다. 각각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새천년 발전 목표2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의 비교

| MDG 2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 | SDG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 <p>건강하고 예방 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학교에 더 잘 다니고 배울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예방 접종은 어린이의 IQ를 높이고 인지 발달, 체력 및 교육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예방 접종은 어린이의 인지 테스트 점수를 높이고 학교 출석 가능성을 높인다. 더 나은 시험 점수와 더 많은 학교 교육은 잠재적 수입을 높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

GAP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우선순위 영역—정책 개선, 교육과 훈련 환경 변혁, 교육자와 훈련자 역량 강화, 청년 위임과 동원 그리고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 해결책 가속화—을 제시한다(UNESCO, 2014, 14). 이는 그동안 시

도했던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합점으로써, 특별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 강조점을 두고 시행하고자 우선순위 영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영역은 교육환경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가르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지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 스쿨, 그린 캠퍼스 등을 통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선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바꾸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의 문화와 경영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모든 교육기관 즉 학교와 훈련기관 및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조직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계획과 전략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수준의 관련자들—교장, 교육센터장, 총장, 더 나아가 사기업사장, 지역사회지도자, 부모 및 훈련생과 학생까지—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UNESCO, 2014, 17-18).

두 번째로 강조한 교육 분야의 변화는 교육자들과 훈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자나 훈련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전달하는 핵심 요원으로서,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를 먼저 습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적절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헌신을 고양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과정이나 유아, 초등, 중등교육을 위한 연수 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지속가능발전 이슈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주제를 실행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유아,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 다양한 인증제와 평가제가 시행될 것이고, 교수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UNESCO, 2014, 19).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우선순위 영역은 청년에 대한 위임과 동원이다.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는 바로 청년들이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파괴적인 발전의 문제를 풀어야 할 세대인 동시에 파괴적인 발전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GAP는 이들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더 나아가 미래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소비자로서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삶의 패턴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학습의 도구가 아닌 네트워킹의 도구로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소통의 유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e-러닝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에 아이디어와 행위를 나누도록 하려고 했다. 또한 청년의 대규모 동원에 있어서는 실현가능한 혁신

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기 위해 창의성과 결단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가지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옹호와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청년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UNESCO, 2014, 21-22).

이처럼 GAP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MDGs와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을 지표로 삼아 지속가능발전을 지역,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각각의 관련자들을 최대한으로 참여시킴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유네스코는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한 이래로 2016년에 교육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GAP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예라 할 수 있다.

5.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2020-2030, ESD 2030, 2020)

유네스코는 2020년에 206차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for 2030, 이하 ESD 2030)을 채택하고,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하였다. 이는 유네스코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MDGs와 SDGs의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한 기획을 제시한 이후 새롭게 작성한 보고서이다. 특별히 GAP이 마무리되는 2019년 이후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SDGs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획서이다. 특별히 SDGs 4번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실제적으로 달성하고자 GAP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부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for 2030)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Giannini, 2020, 5).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증가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ESD는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과 인식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추진하도록 실천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GAP에서 제시했던 목표를 재확인 한 것이고, 동시에 현시점에서부터 2030년까지 가장 시급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들을 ① 정책 개선, ② 학습 환경 변혁,

③ 교육자 역량 개발, ④ 청년의 권한 부여와 참여, ⑤ 지역 차원의 실천 가속화라는 5가지 우선 실천 영역에서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획서라 평가할 수 있다(Giannini, 2020, 8). 왜냐하면 ESD 2030에서 제시하는 우선 실천 영역은 GAP에서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향후 10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iannini, 2020, 50-51).

〈표 4〉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의 모니터링 영역과 방식 그리고 지표

| 영역 | 무엇을 | 어떻게 | 지표 |
|----------------------------------|---|---|---|
| ESD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 | SDG 세부목표 4.7의 국제 지표 4.7.1을 관리하는 기관인 유네스코는 회원국별 ESD 2030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자 1974년 권고 이행 보고 과정에서 수합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 | 4년마다 보고서 작성 | 국제지표 4.7.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에 주류화된 정도 |
| 국가 활동 계획 진전 상황 | '2030년을 위한 ESD' 국가 활동 계획을 통한 5대 우선 실천 영역에서 달성된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 | 2년마다 설문조사 | 우선 실천 영역별, 각 지표에 대한 진전 상황 모니터링 |
| 여타 ESD-Net 협력기관 활동 진전 상황 | 여타 ESD-Net 협력기관의 ESD 2030 활동을 통해 5대 우선 실천 영역에서 달성된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 | 2년마다 설문조사 | 각 지표에 대한 진전 상황 |
| ESD 진전 상황 및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양적·질적 정보 | 유네스코는 공식 모니터링과 더불어 ESD 2030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 포착을 위해 선택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 세부목표 4.7 관련 표준 모니터링 핵심 이슈, 동향, 발전을 확인·분석하는 주제별 설문조사 | |

특별히 ESD 2030은 모니터링을 위한 두 가지 지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1974년 권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ESD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지표”이다. 먼저 1974년 권고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는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라는 제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권고문이 작성되게 된 계기는 바로 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네스코, 1974, 2).

회원국의 정의, 자유, 인권 및 평화 진흥을 위한 모든 사람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어떤 활동도 격려, 지지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그런데도 유네스코와 그 회원국 활동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취학 아동과 학생, 젊은이 그리고 계속 교육받고 있는 성인과 교육자 중 오직 소수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 교육의 교과 과정과 방법이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 이와 성인 요구와 열망에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 대상을 중심으로 권고문 9조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 헌법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본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한다. 이어서 5장 “학습, 훈련, 행동의 상세한 측면”에서 윤리적·시민적(10-16조), 문화적(17조), 주요 인류 문제에 대한 연구(18-19조), 그리고 인권과 국제협력에 대한 기타 측면(20-21조)과 관련하여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상세하게 권고하였다. 그리고 6장 “교육의 여러 부분 활동”(22-32항)에서 모든 형식과 모든 수준—협동학교, 취학전 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클럽활동—에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 “교사 훈련”(33-37항), 8장 “교육 시설과 자료”(38-40항), 그리고 10장 “국제 교육”(43-45조)에서는 권고 사항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1974 권고문은 교육의 형식과 방법 그리고 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를 지표로 하여 ESD 2030은 유네스코와 회원국이 정의, 자유, 인권 및 평화 증진을 위해 교육 내용으로써 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채택하고, 교육 평가 방법으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SD 2030은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Giannini, 2020, 8, 49).

- 정책: ESD 촉진을 위한 법령 체계 및 정책 구비 정도
- 학습 환경: 학습 환경이 ESD 및 이에 대한 기관 전체적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있는 정도
- 교육자: 교육자들이 ESD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학습 상황에서 기관 전체적 접근 방식을 ESD에 적용하는 정도
- 청년: 청년들의 ESD 참여 정도
-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ESD 촉진 정도
- 국가 활동 계획의 진전 상황: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이 전 세계 국가에서 이행되는 정도

이처럼 ESD 2030은 그동안 개발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좁게는 지역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국내외 협력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의 대상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운영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현실화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비호혜적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로부터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은 1999년 유네스코의 요청에 따라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모랭은 “미래교육”이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원칙1. 오류와 착각으로 인한 지식의 맹목성을 뛰어넘기 위한 인간 지식의 연구
- 원칙2. 맥락과 복잡성, 총체성 속에 자리매김한 인간 정신의 타고난 능력 개발
- 원칙3. 육체, 생명, 정신, 문화, 역사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 회복을 위한 조건
- 원칙4. 상호연대를 요하는 지구인으로서 운명공동체 속의 지구위기 복잡성 이해
- 원칙5. 불확실성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대응
- 원칙6. 몰이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화교육을 위한 이해하는 마음의 의사소통
- 원칙7.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참여, 인류에의 소속의식을 결합한 인류의 윤리와 정치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네스코는 새천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형성 및 진행에 노력해 왔다. 동시에 한국 유네스코도 같은 선상에서 국내적으로나 지역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교육하고, 각급 학교와 시설 그리고 단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리더십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토대 점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소개되면서 함께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이다. 이들 목표들은 총 17개으로써 사람, 지구, 파트너십,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진영과 그의 동료들은 SDGs와 관련된 주요논문집인 World Development와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 수록된 730편의 논문초록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였다. 하나는 젠더이고, 다른 하나는 남남협력이다. 즉 문화적 경제적 이슈가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기후나 수자원 및 육지생태계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이슈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이진영 외, 2018, 189). 왜냐하면 환경적 이슈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속가능에 방점을 둘 때 강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대 적용되었다. 대표적

인 문서로는 2002년에 “유엔 ESD 10년”(DESD)이 채택되고, 그 후 2014년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글로벌행동프로그램을 위한 로드맵”(GAP)을 통해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2030)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의 행동지침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배경에는 미래환경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지역공동체적 협력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유응조, 2020, 6-7). 그런데 조우진에 따르면 이러한 유네스코 문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에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조우진, 2019, 231).

의미상으로 ‘지속가능한’과 ‘발전’이 실제로 내포하고 있는 뜻을 생각할 때,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논의는 일반적으로 SD를 국가 단위 중심의 국제사회 또는 지구사회가 내놓은 타협의 산물로 인식하며, 자국 또는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면서 두 개념 중 하나에 더 무게를 실어 수용하는 입장에서 전개된다. 대체로 ‘지속가능한’에 무게를 두면, SD의 주요 세 영역으로 제시되는 환경, 경제, 사회 중 특히 환경 부분을 경제 부문보다 우위에 놓는 생태중심주의에 가까운 입장에 서게 된다. 반대로 ‘발전’에 무게를 두면, ‘지속가능한’이란 형용사가 비록 발전의 의미를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역시 지속적인 발전, 특히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체로 경제 부문을 우위에 놓는다. 앞의 것을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이라 한다면 뒤의 것은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 중심논리와 경제 중심논리에 의해 양분되어 국제관계 및 국내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논란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명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윤리학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환경윤리학자인 린 화이트(Lynn White)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글에서 성경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환경 위기를 촉발하는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화이트, 1992, 290).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는 비순환적이고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한 창조설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많고 전능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천체와 지구, 그리고 지상의 식물과 동물,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후 그를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이브를 창조했다. 인간은 모든 동물에 이름을 부여했고,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모든 물리적인 창조물들은 단지 인간의 의도에 봉사할 뿐 다른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배와 정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잘

못 해석되고 적용되던 문화명령을 비판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일치되는 기독교적 대안을 찾자 하였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옥스포드 선언문”이다. 이 보고서는 1990년 1월에 신학자, 경제학자, 윤리학자, 발전실무자, 교회지도자, 및 기업경영자 100여 명이 모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기독교적 경제생활에서의 정의를 선포하였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장인 ‘창조와 청지기의 직분’에서 문화명령을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Hawtrey, 1990, 3).

7. 인간은 창조계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존재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 이외의 창조물에 대한 정복을 허락하신다(창세기1:28-30). 그러나 정복(dominion)은 압박(domination)이 아니다. 창세기2:15에 따르면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정복은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하는 두 가지 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적인 측면도 가져야 한다. 경제체제는 건전한 생태계가 시간이 지나가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연보호자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책임있는 일들은 환경과 협동하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이데올로기나 환경 이데올로기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사회와 미래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서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하는 정의 개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양극단적 대립을 해결하였다. 특별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경작’과 ‘보호적인 지킴’이 수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옥스포드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작하고 지키게 함”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바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토대라 할 수 있다.

2. 기독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

교육학자 윌리엄 슈베르트(William H. Schubert)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경험을 조직하고 이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더불어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고 평가하여 개혁해 나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함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한다(Schubert, 1986). 그러하기에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소개되고, 이를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시행되면서 DESD, GAP, 그리고 ESD 2030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모듈들이 소개되고 운영되었다. 그중에서 2013년에 작성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정책 및 실행 평가 도구”(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 A Policy and Practice Review Tool)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시행되고 있는 ESD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대중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ESD 프로그램을 지표개발작업이 수월하도록 개발된 연구보고서이다. 그 구성은 총 다섯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 계획 및 준비,
-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 활용한 국가정책 평가,
-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 활용한 질적 학습 결과 평가,
-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 활용한 실행 평가,
-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실천 계획자

이를 통하여 ‘지역적 연관성’(local relevance)과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전략에 기반 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평가·모니터링 지표가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표의 견본(template)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적·포괄적 지표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민동석, 2013, iv).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엔 DESD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모델을 2015년까지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한국 유네스코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학교별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신인순, 2017, 44). 일례로 유명 의와 그의 동료들은 한국의 ESD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유영의 외, 2013, 319).

- 첫째,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책과 추진 방향의 재고,
-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 교육 및 녹색성장교육에 대한 개념의 재인식,
- 셋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와 유아교육을 포함한 학교 및 지역교육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노력을 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수위를 교단 차원과 개별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진행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신학자들과 교회 현장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속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따라 교단적 차원의 교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최지연과 그의 동료들은 학급 단위의 수업 설계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ESD 수업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최지연 외, 2017, 59-60).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해, 적용, 실천을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개념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세 가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이해를 위한 개념 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은 개념제시, 자료제시, 개념형성, 개념검증, 사고분석, 평가 및 성찰의 5단계로 구성되었다 ... 둘째, 지속가능발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 해결 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은 상황 만나기, 문제 명료화하기, 해결 방안 탐색하기, 미래 예상하기, 답안 결정하기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은 목적 설정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비평하기의 4단계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ESD 수업 설계는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 역량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미래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기독교교육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뼈대를 세운다면, 동시에 수업 설계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의 살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 속에서 개신교 신앙을 다음 세대 전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교리문답서이다. 특별히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영주에 따라 결정되는 독일 사회에서 개신교를 옹호하는 세력이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전 교회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에 칼빈의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은 개별 교회적 차원에서의 수업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네바 시에서 시도한 성경 공부이지만, 특별히 다양한 신학적 이슈들과 더불어 교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안인섭, 2016).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리더십의 개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문서인 DESD에서는 특별히 교육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경 외 동료들은 한국의 ESD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이선영 외, 2005, iii).

-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학생과 교사의 이해 수준은 높지 않다.
- 2)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3) 교사 대상의 연수와 교원 양성과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 4)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은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5)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효율적으로 가르쳐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발전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학교 및 주일학교 모델 제시와 더불어 이를 교육하고 운영하기 위한 교육리더십의 발굴과 훈련이 절실함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리더십을 개발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접근과 영적인 접근의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이종민, 2021, 88).

교회지도력을 개발함에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대답을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행정조직적인 대답을 구한다는 사실이다 ... 성경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조직행정적인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세의 예를 보여주는가 하면, 동시에 공동체가 직면하게 된 행정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사도들의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목회와 교회교육을 위한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신학교육은 전형적으로 목회자 양성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신학생들이 목회를 위하여 성경연구법과 설교법 그리고 목회를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반면에 교육을 위한 신학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나삼진, 2013). 따라서 유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와 성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을 위한 교회학교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적 역량을 훈련받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된다. 또한 신학 공부 이후에는 연수 과정을 통해 전문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이전에 해오던 목회방식을 답습하기 쉽다. 물론 개인적 열심에 따라 다양한 세미나를 통한 목회 쇄신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통한 교육리더십 개발 과정이 새롭게 개발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독교교육이 되려면 교육리더십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살았던 시대에 비해 다가오는 시대는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점점 더 척박해져 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지난 20세기까지 즐기던 자연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각각의 환경단체들이 작성하는 지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적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과거에 경험했던 여유와 즐거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극적이면서도 향락적인 문화가 미디어와 일상생활을 공격해 오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문화적 혹은 윤리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김도일, 2020; 류삼준,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이데올로기나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닌 통합적 사고에 기반 한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과 유네스코에서는 주요문서들을 채택하면서 개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가국들과 함께 운영 실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류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원과 자연을 고갈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도하고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참여국들은 MDGs와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대상에게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SD의 교육모델과 교육실천을 살펴보면,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그중에서 먼저 교육의 토대로서 문화명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경작하고 지킴에 대한 실천적 가치를 재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 차원에서 광의적 의미의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협의적 의미의 학습 역동의 쇄신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리더십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류의 교육 참여자들의 동원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을 통한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교육의 혁신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이 제시하는 지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구상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리더십은 21세기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방법들에 비해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SD, SDGs, 그리고 ESD를 활용하여 기독교교육의 토대를 재점검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를 재검토하며, 교육리더십을 재정립하여 실천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혁을 지속해 나아간다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에 따르는 교육의 혁신이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I.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나삼진 (2013). 한국에서의 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 교과 분석과 교회교육 전문가 양성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6, 169-194.
- [Na, S. J. (2013). Analysis of Christian Education Courses at Theological Seminaries and Tasks for the Training of Christian Education Professionals in South Kore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169-194.]
- 류삼준 (2021).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339-375.]
- 민동석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정책 및 실행 평가 도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Min, D. S. (2013). The Len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Policy and Practice Assessment Tool.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97). 조형준, 홍성태 역.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7). Our Common Future(H. J. Jo & S. T. Hong Trans). Seoul: Holy Wave.]
- 신인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한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의 개발에 관한 연구.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 27-49.
- [Shin, I. S.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 Outdoor Camp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 27-49.]
- 아르젠 발스 (2009). 신상일 역. 지속가능발전교육-맥락과 구조의 검토.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Wals, A.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Review of context and structure(S. I. Shin Trans).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안인섭 (2016). 칼빈의 기독교 교육 사상이 제네바시 공동체에 미친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48, 183-214.
- [Ahn, I. S. (2016). Christian Education and its Influence to the Genevan City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8, 183-214.]
- 에드가 모랭 (2006). 고영림 역.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 서울: 당대.
- [Morin, E. (2006). *Seven Complex Lessons for the Future*(Y. L. Koh Trans). Seoul: DangDae.]
- 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한국의 교육정책 및 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분석. **유아교육학 논집**, 17(3), 319-341.
- [Yoo, Y. E., Kim, E. J., Shin, E. S. & Park, E. H. (2013). Analysis of the Korea Educational Policy and Current Curriculum Based on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3), 319-341.]
- 유은주 (2022).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72, 293-316.
- [Yoo, E. J. (2022).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293-316.]
- 유응조 (2020).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Yoo, E. J. (2020).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lementation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in Korea.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이선경 외 (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서울: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Lee, S. K. et. al. (2005).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 Sustainable Development. Seoul: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이종민 (2021).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디렉팅과 교육디렉터의 직무기술서 연구. *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3(2), 87-107.
- [Lee, J. M. (2021). A Study on Education Directing and Education Director's Job Description for Vitalizing Church Education. *Journal of Church Education & Welfare Practice*, 3(2), 87-107.]
- 이진영, 손혁상, 이일청 (20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연구동향 분석: 17개 목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2(2), 189-209.
- [Lee, J. Y., Sohn, H. S. & Lee, I. C. (2018). Networks among UN SDGs: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2(2), 189-209.]
- 조우진 (2012).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렌즈. *국제이해교육연구*, 7(1), 39-69.
- [Cho, W. J. (201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 for Criticism and Alternative to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7(1), 39-69.]
- 조우진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한국환경교육학회발표논문집, 229-233.
- [Cho, W. J. (2019).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Conference*, 229-233.]
- 최지연, 황동국, 이태석, 유동현, 이상원 (2017).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의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7(13), 41-64.
- [Choi, J. Y., Hwang, D. K., Lee, T. S., Ryu, D. H. & Lee, S. W. (2017). The Instructional Model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3), 41-64.]
- 홍성수 (2022).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SD)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 *기독교교육논총*, 72, 273-291.
- [Hong, S. S. (2022). A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ristian Schoo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273-291.]
- 한택환, (1994).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Han, T. H. (1994). Agenda 21 &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Fien, J. & Parker, J. (201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 A Policy and Practical Review Tool*. Paris: UNESCO.
- Giannini, S.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map, Paris: UNESCO.
- Hawtrey, K. (1990).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Transformation*, 7(2), 1-8.
- Schubert, W. H. (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Hoboken: Prentice Hall, Prentice Hall.
- UNESCO.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18th session. Paris: UNESCO.
-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UNESCO.
- UNESCO, (2014) *UNESCO 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UNESCO.
- UNCED, (1992). *Agenda 21*. Rio: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hite, L. (1967/1992).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Y. S. Lee Trans). *Science*, CLV, 1203-1207.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